

## <트럼프 상호관세 전략 너머 보기>

인디이콘 임동민

👉 (편집주) 어젠다뉴스는 의제의 집단 생성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 하에 국내외 여러 정책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단 1분도 허비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정보와 애깃꺼리를 제공함은 물론, 양방향 소통을 통해 나날이 의미를 더하는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어젠다뉴스에서 인디콘레터를 보내드릴 임동민입니다. 인디콘(INDECON)은 '독립적인(Independent) 경제분석가(Economist)'의 영문 약자로, 2025년 3월에 창업한 1인 리서치 펌입니다. 저는 개인 닉네임 '인디이콘'을 사용합니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일했고, 2024년부터 지금까지는 프리랜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젠다뉴스에서 독립적인 경제분석가의 시선으로 경제와 금융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전해드리게 되어 반갑고 기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구독을 바랍니다.

✓ 첫 번째 인디콘레터는 <트럼프 상호관세 전략 너머 보기>입니다. 1.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2. 미국의 상호관세 의도, 3.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 손익, 4. 각국의 대응, 5. 향후 세 가지 시나리오 전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 4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시작된 충격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지에 대해 조망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1. 미국의 교역 대상국 상호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언하면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미국 주식시장은 2거래일 동안 폭락하면서 시가총액이 5조 달러 가량 감소했습니다. 중국은 4월 4일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미국과 동일하게 3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미국의 관세인상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1)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동력 제고, 2) 재정지출 감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개선, 3) 관세인상을 통한 대외불균형 해소 목적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 될 전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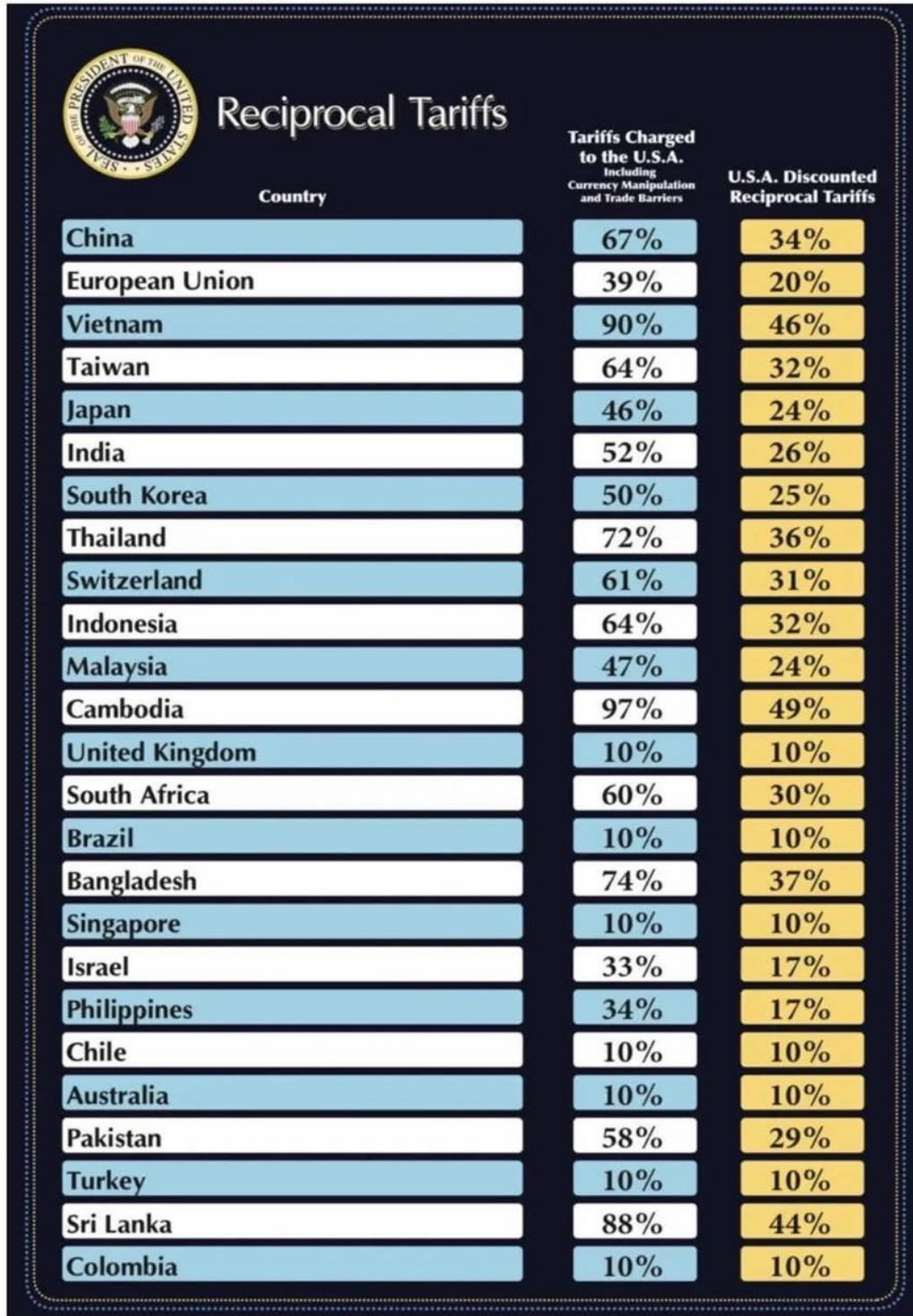
이번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차등 부과로 트럼프 2기의 관세 및 무역정책이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25년 4월 5일부터 전세계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4월 9일부터는 총 57개국에 대해 개별 상호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율이 높은 순서로 보면, 베트남 46%, 미얀마 44%, 태국 36%, 중국 34%, 대만 32%, 인도네시아 32%, 스위스 31%, 남아공 30%, 인도 26%, 한국: 25%, 말레이시아 24%, 일본 24%, EU 20%, 이스라엘 17% 등입니다. (전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리스트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5/04/Annex-I.pdf>)

## 2. 미국의 관세율 산출 방식에서 엿볼 수 있는 미국의 의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 발표 시, 보여진 도표의 수치에 대해 2가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1) 각국의 미국에 대한 관세율 추정(Tariffs Charged to the U.S.A.) 수치의 근거, 2) 미국이 각국에 부과한 할인 상호관세(U.S.A. Discounted Reciprocal Tariffs) 수치가 미국에 대한 관세율 추정의 50% 가량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한국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도표에 제시된 50% 관세율은 미국과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식적인 관세율과는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율은 25%였는데, 이는 미국이 제시한 한국의 추정관세율의 50%로 정해진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관세율 추정치는 너무 높고, 미국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은 미국의 각국 추정 관세율의 절반 가량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이미지 1> 미국 상호관세표



The chart, titled "Reciprocal Tariffs", features the Presidential Seal of the United States in the top left corner. It compares the percentage of tariffs currently charged to the U.S. (including currency manipulation and trade barriers) with the percentage of U.S.A. discounted reciprocal tariffs for 25 different countries. The data is presented in a table with alternating light blue and white rows for countries.

Country	Tariffs Charged to the U.S.A. Including Currency Manipulation and Trade Barriers	U.S.A. Discounted Reciprocal Tariffs
China	67%	34%
European Union	39%	20%
Vietnam	90%	46%
Taiwan	64%	32%
Japan	46%	24%
India	52%	26%
South Korea	50%	25%
Thailand	72%	36%
Switzerland	61%	31%
Indonesia	64%	32%
Malaysia	47%	24%
Cambodia	97%	49%
United Kingdom	10%	10%
South Africa	60%	30%
Brazil	10%	10%
Bangladesh	74%	37%
Singapore	10%	10%
Israel	33%	17%
Philippines	34%	17%
Chile	10%	10%
Australia	10%	10%
Pakistan	58%	29%
Turkey	10%	10%
Sri Lanka	88%	44%
Colombia	10%	10%

Chart of reciprocal tariffs.

Courtesy: Donald Trump via Truth Social

미국의 상호관세 산출방식에 대해 담당 부서인 미국 무역대표부에 문의가 많아지자, 무역대표부는 관세 발표 후 5~6시간이 지나 상호관세를 산출하는 방식을 공표했습니다. (<https://ustr.gov/issue-areas/reciprocal-tariff-calculations>) 무역대표부가 공표한 설명에 따르면, 교역상대국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 항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Delta\tau_i = \frac{x_i - m_i}{\varepsilon * \varphi * m_i}.$$

위 공식에서  $\tau$ : 관세,  $x$ : 수출,  $m$ : 수입,  $\varepsilon$ : 관세 1단위에 따른 수입가격 탄력성,  $\varphi$ : 수입 가격에 따른 수입탄력성을 의미합니다. 위 방정식을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우항의 분자는 미국의 무역수지, 분모는 미국의 수입에 탄력성을 곱한 수치가 됩니다. 결국 이 공식에 의한 관세율은 미국이 상대국과의 무역적자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 미국이 상대국에 부과해야 할 관세변화폭을 의미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율 계산법 추정, 국제금융센터 이슈브리핑 참조)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이 각국에 제시한 상호관세율이 2024년 미국과 해당국가와의 상품수지(분자)/해당 국가로부터의 미국 상품수입(분모) 수치와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해외로부터 필요한 상품은 필요한 만큼 받고 그에 따른 무역 적자로 인해 발생하는 국부는 고스란히 '관세'라는 명목 하에 되찾아 오겠다는 겁니다.) 아래 표는 대미국 상품수지 흑자가 큰 국가 리스트입니다. 우리 한국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2024년 대미국 상품수입 655억 달러(A), 대미국 상품수출 1,315억 달러(B), 대미국 상품수지 흑자(B-A) 660억 달러이며, 대미국 상품수지 흑자/대미국 상품수출 비율은 50.2%입니다. 미국이 제시한 한국의 관세율 추정 50%와 불과 0.2%pt 차이입니다. 표에서 확인하듯, 다른 국가들의 대미국 상품수지 흑자/대미국 상품수출 비율과 미국이 제시한 각국의 관세율 추정 수치가 소수점 단위를 빼면 일치하게 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제시한 관세율 공식에 따르면,  $\varepsilon$ (관세 1단위에 따른 수입가격 탄력성),  $\varphi$ (수입가격에 따른 수입탄력성)이 1이라고 가정했을 때, 미국이 부과할 관세율의 변화는 미국의 무역수지/미국의 수입액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표 1> 2024년 주요 국가들의 대미국 상품수출, 수입 및 상품수지와 관세율

국가	대미국 상품수출	미국의 상품수입	대미국 상품수지	대미국 상품수지/ 미국의 상품수입 비율	미국에 대한 관세율 추정	미국 상호 관세율
산식	A	B	B-A	(B-A)/B		
중국	143.5	438.9	295.4	67.3%	67%	34%
EU	370.2	605.8	235.6	38.9%	39%	20%
멕시코	334	505.9	171.9	34.0%	USMCA로 일시 제외	
베트남	13.1	136.6	123.5	90.4%	90%	46%
아일랜드	16.5	103.2	86.7	84.0%	EU에 포함	
독일	75.6	160.4	84.8	52.9%	EU에 포함	
대만	42.3	116.3	74	63.5%	64%	32%
일본	79.7	148.2	68.5	46.2%	46%	24%
인도	41.8	87.4	45.6	52.3%	52%	26%
한국	65.5	131.5	66	50.2%	50%	25%
캐나다	349.4	412.7	63.3	15.3%	USMCA로 일시 제외	
태국	17.7	63.3	45.6	72.0%	72%	36%

자료 :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율 계산법 추정, 국제금융센터 이슈브리핑 단위 : 십억 달러, %

만약 미국이 한국에 이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의 대미 상품수출이 유지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2025년 미국은 한국의 상품수출 대상으로 330억 달러 가량의 관세수입을 얻게 되고 2년이 지나면 미국의 상품적자액 660억 달러를 관세수입으로 메울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이 지나면 미국은 2024년 전체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총 1조 1,230억 달러)만큼의 관세수입을 얻게 됩니다. 각국의 대미국 상품수출 증감에 따라 관세수입 규모는 변화되겠지만, 미국이 국가별 수입과 관세를 유지하는 한, 이 관세수입은 영구적입니다.

미국이 관세율 추정에 있어 전체 무역수지가 아닌 상품수지를 택한 이유도 뚜렷합니다. 무역수지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로 나뉘는데, 미국의 상품수지는 적자이고, 서비스수지는 흑자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미국 서비스수지는 2,95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교역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품부분에서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흑자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부분에서 관세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서비스부분의 대외 교역에서 상대국 모두가 상호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미국과 서비스 부분 적자를 보이고 있는 국가가 관세로 얻는 이득이 더욱 크게 될 것입니다.

### 3.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통한 손익

미국의 입장에서 상호관세 부과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더 확장됩니다. 글로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세계 가장 큰 소비시장인 미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현지생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업은 현지에서 더 싸게 만들어 수출하거나, 미국에 진출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관세를 얻고, 미국 소비자들의 당장은 관세인상으로 가격이 높아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싸게 더 많은 수입품을 소비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는 것은 글로벌 기업들이 높은 관세를 부담해 수출하기보다는 미국으로 진출, 혹은 귀환해 미국에서 투자하고, 고용을 늘리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번 상호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이 얻게 되는 이득은 1) 관세 수입, 2) 글로벌 기업의 비용감축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 3) 글로벌 기업의 미국 진출, 혹은 귀환으로 인한 미국 경제진작 효과가 됩니다. 반대로 이번 상호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이 얻게 되는 손해는 하나입니다. 관세인상으로 인한 미국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미국인들의 구매력 감소입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구매력 감소는 정확히 미국 정부의 관세수입으로 상쇄됩니다.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수입을 바탕으로 하여 미국민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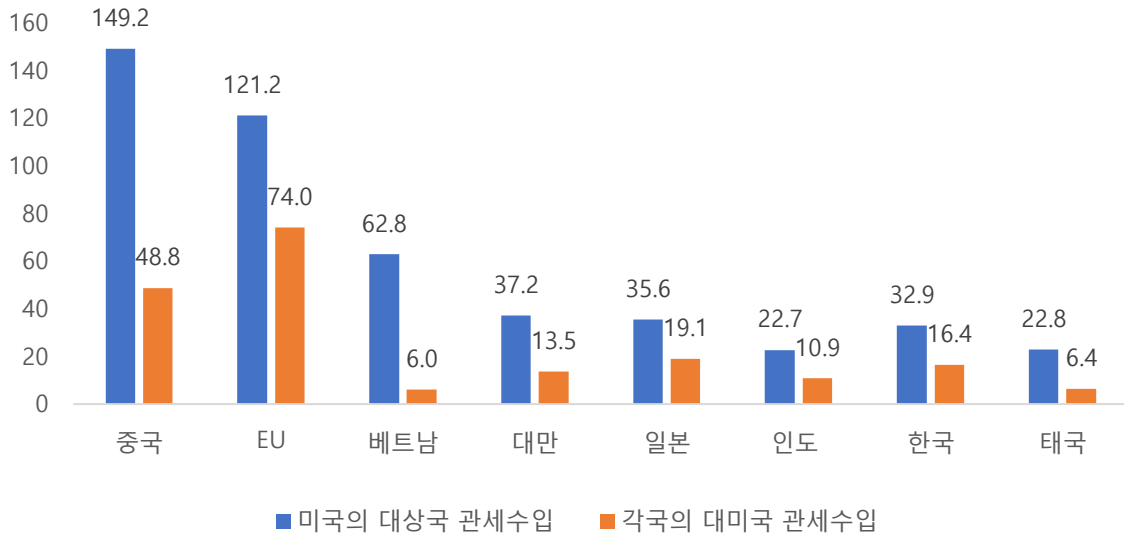
또한 글로벌 기업들이 관세인상의 일정부분을 자신이 비용으로 감당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 미국 판매량이 감소하면, 재고증가-생산감소의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기업들은 최대한 가격경쟁을 통해 미국에 대한 수출 및 판매량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미국 현지생산 증가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바라는 바입니다. 다만 이 경우 미국 외 생산비중이 높은 미국 기업들은 마진축소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미국에 수출품에 관세가 추가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혹은 현지에서 판매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들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비용이 상승하고, 이윤이 감소해 주가하락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제적 충격은 미국 외 생산 및 수출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현지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생산감소 및 고용축소가 전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각국에 큰 폭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쪽이 단기적인 손실 대비 장단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 면에서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 4. 각국의 대응: 보복관세 인상에 나서기 쉽지 않아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미국과 동일한 34% 관세부과로 즉각 대응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와 같은 로직으로 볼 때, 중국도 미국과 유사하게 관세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관세수입은 49억 달러로 미국의 149억 달러에 비해 적습니다. 한국이 만약 미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관세수입은 16.4억 달러로 미국의 32.9억 달러에 비해 적습니다. 즉, 대미국 상품수지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중국, EU, 베트남, 대만, 일본, 인도, 한국, 태국과 같은 국가들은 미국에 동일한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얻게 되는 관세수입이 미국에 지불해야 하는 관세징수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차트 1> 미국과 동일한 상호관세 부과 시 각국의 관세수입 추정

(십억 달러)



자료 : 미국 경제조사국, 인디콘 산출

주 : 2024년 미국과 상품교역 대상으로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를 각국이 동일하게 부과했을 때, 얻게 되는 연간 관세액

또한 중국, EU 정도가 아니면 미국에 동일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비경제적인 추론이지만, 각국이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비교역, 비경제적 부분에서 보복조치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제재, 정치/안보/군사적 위협 등을 받을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목적은 당연히 관세수입을 얻기 위함이 아니며, 미국과 협상을 하자는 뜻일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2월부터 미국과 관세부과를 진행하면서 내부협상을 벌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서로 관세부과라는 카드를 내 놓고, 협상을 벌이면서 절충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미국도, 상대국도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 5.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세 가지 시나리오

트럼프 2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시나리오는 3가지로 구분됩니다.



- 1) 미국과 교역대상국이 보복 상호관세 부과하지 않는 경우, 즉 미국만 상호관세 부과 이후 협상,
- 2) 미국과 교역대상국이 보복 상호관세 부과하는 경우, 즉 각국의 보복 상호관세 부과 이후 협상,
- 3) 전세계가 상호관세를 부과, 즉 전세계가 무역전쟁에 가담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중국이 미국에 대해 보복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향후 EU 등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중국에 이어 EU까지 미국에 보복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사실상 1) 시나리오에서 2) 시나리오로 국면은 전환될 것입니다. 3) 전세계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중국, EU 등이 상품교역 이외 서비스교역에서 관세부과, 또는 중국, EU 등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교역국 대상으로 전방위적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1), 2)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 EU간 무역갈등이 나타난 이후 조정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3) 시나리오는 전세계 무역전쟁 경우로, 지난 20세기 장기간 구축된 전세계 자유무역 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충격으로 확대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시나리오별 전세계와 한국 교역증가율과 경제성장률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번 인디콘레터를 마칠까 합니다.

1) 미국과 교역대상국이 보복 상호관세 부과하지 않는 경우, 즉 미국만 상호관세 부과 이후 협상에 나설 경우 전세계 교역증가율, 경제성장률은 기존 경로대비 연간 -0.9%pt, -0.5%pt 하향, 한국 수출증가율, 경제성장률은 기존 경로대비 연간 -2.8%pt, -0.6%pt 하향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트럼프 2기 2025~2028년 전세계 교역 및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3.2%에서 +2.5%, +2.6%, 한국 수출 및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2.1%에서 +0.6%, +1.6%로 하향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세계 교역증가율, 경제성장률이 +3% 미달, 한국 수출증가는 제로, 경제성장 1%대가 고착화되는 추세입니다. 한국의 수출증가율 하향이 큰 이유는 한국의 높은 대외의존도 때문입니다.

2) 미국과 교역대상국이 보복 상호관세 부과하는 경우, 즉 각국의 보복 상호관세 부과 이후 협상에 나설 경우 전세계 교역증가율, 경제성장률은 기존 경로대비 연간 -1.1%p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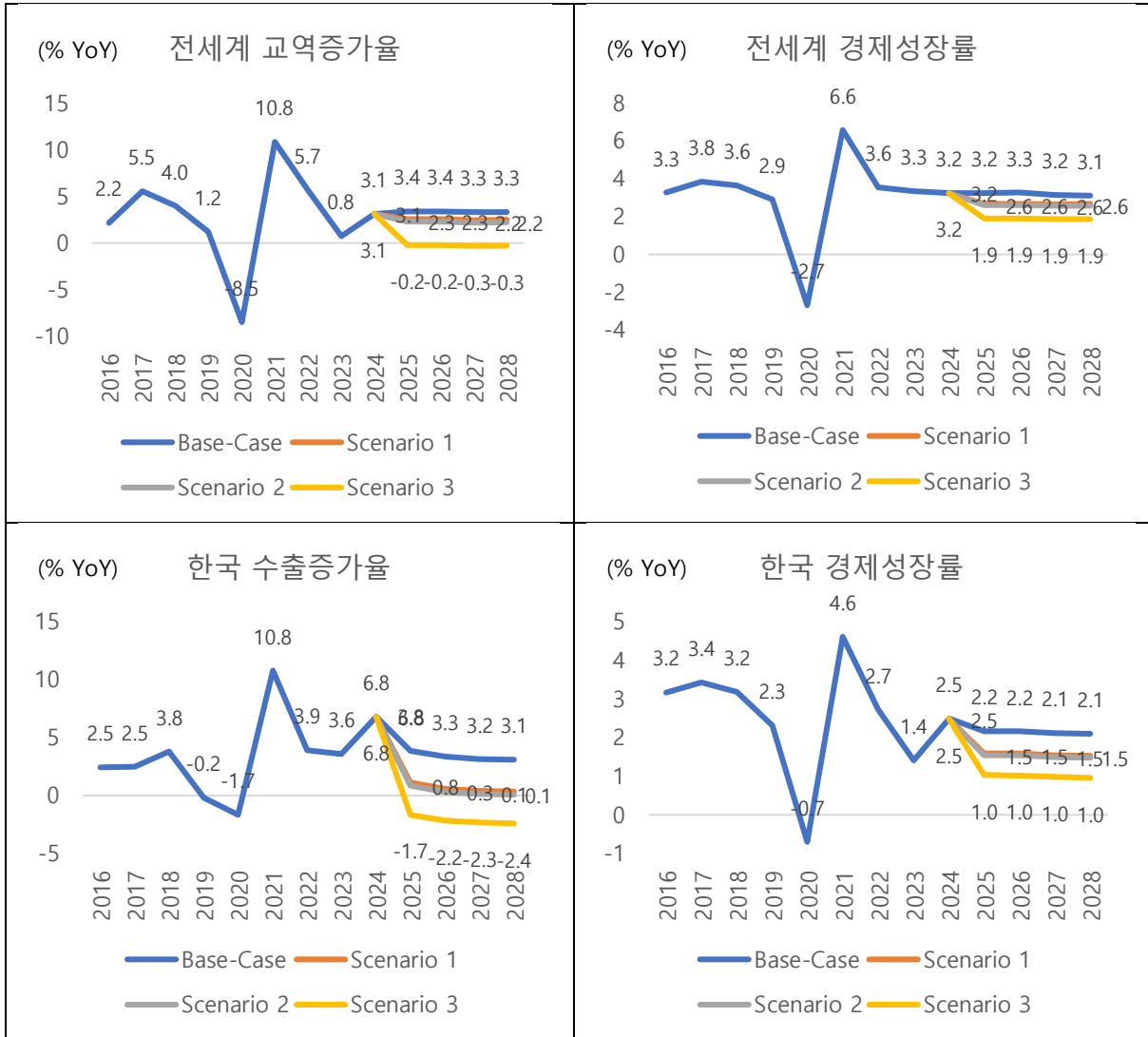
0.6%pt 하향, 한국 수출증가율, 경제성장률은 기존 경로대비 연간 -3.0%pt, -0.6%pt 하향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트럼프 2기 2025~2028년 전세계 교역 및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3.2%에서 +2.2%, +2.6%, 한국 수출 및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2.1%에서 +0.3%, +1.5%로 하향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세계 교역증가율, 경제성장률이 +2% 초반으로 하향, 한국 수출증가 제로, 경제성장 1%대가 고착화되는 추세입니다.

3) 전세계가 상호관세를 부과, 즉 전세계가 무역전쟁에 가담하는 경우 교역증가율, 경제성장률은 기존 경로대비 연간 -3.6%pt, -1.3%pt 하향, 한국 수출증가율, 경제성장률은 기존 경로대비 연간 -5.5%pt, -1.1%pt 하향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트럼프 2기 2025~2028년 전세계 교역 및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3.2%에서 -0.2%, +1.9%, 한국 수출 및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2.1%에서 -2.1%, +1.0%로 하향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세계 교역이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경제성장이 +2%에 미달하며, 한국의 수출이 큰 폭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1%를 하회하게 되는 추세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시나리오 1, 2과 같이 미국과 교역상대국이 1차 보복 상호관세 대응에서 그친다면 다행히 2025~2028년 전세계 교역, 경제가 경착륙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수출증가율은 제로수준으로 큰 폭 하향되고, 경제성장은 +1.5% 수준으로 고착화되어, 한국의 대외수지의 급격한 악화와 저성장의 심화 등이 우려됩니다. 시나리오 3과 같이 전세계 무역전쟁이 확대된다면, 전세계 교역의 감소와 심각한 저성장이 야기되고, 한국 대외수지의 급격한 악화 가운데, 제로 성장이 현실화되는 경로로 요약됩니다.

(다음 페이지: 차트 2)

<차트 2> 트럼프 2기 상호관세 이후 시나리오에 따른 전세계, 한국 교역 및 경제성장률 경로



자료 : IMF WEO(2024년 10월)를 토대로 인디콘 추정